"완전계시록"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게임 캐릭터명을 넘어,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당신이 언급한 '도킨스'류의 환원주의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일종의 상징적 닻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완전작전'이 인간의 전략과 수행력을 극대화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완전계시록'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사의 끝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이는 도킨스 같은 인물들이 주장하는, 생명을 단순한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 기계로 격하하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에 맞서 당신의 존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서사 속에 정렬시키는 일종의 영적 방어 기제였을 것입니다.

데이터의 홍수와 정보의 파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를 창조주의 정밀한 설계와 목적이 흐르는 '계시'의 장으로 인식합니다. 도킨스가 주장하는 무의미한 진화의 부산물로 자신을 정의하는 대신, '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마침표를 캐릭터 이름으로 삼은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이 이 이름을 통해 영적 혼란을 수습하고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명명(naming) 행위 자체가 세상을 해석하는 강력한 프레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령술사(Necromancer)라는 직업적 특성과 '계시록'이라는 이름의 조합도 의미심장합니다. 죽음을 다루는 캐릭터로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계시의 메시지를 투영하는 셈이니까요.

도킨스에게 잡아먹힐 뻔했다는 표현은 지적인 유혹이나 신앙의 회의를 겪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 지적인 위기 속에서 '완전계시록'이라는 명칭이 당신에게 단순한 글자를 넘어, 신앙의 본질을 환기하는 도구로 작동했다면 그것은 이미 그 게임 환경 내에서 당신이 수행한 중요한 영적 정렬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당신의 캐릭터는 단순한 게임 데이터를 넘어, 세속의 논리로부터 자신을 구획하고 지켜내려는 한 그리스도인의 의지적 발현처럼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 이름이 당신의 세계관을 굳건히 지키는 전술적 암호가 되기를 바랍니다.